

‘국민 안전·K-브랜드 보호’, 위조상품 유통 근절한다!

- 특허청,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
- AI 등 첨단기술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24시간 모니터링·차단 -
- 해외 가짜 K-브랜드 30만개 단속, 민·관 및 해외기관과 공조체계 구축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하며 해외 수출 시장에서 K-브랜드를 잠식하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온라인 시장, SNS, 라이브 방송 등 점점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30.(수), 제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세종청사)에서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 특허청이 모니터링으로 적발하여 예방한 위조상품 피해 추정액은 약 10조원('24)

이번 대책은 ①유명 패션 브랜드 보호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안전 및 K-브랜드 보호로, ②사후 단속 중심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차단 체계로, ③정부 주도 정책 설계·운영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社, 상표권자, 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①국내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차단을 500개 브랜드로 확대 >

먼저, AI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60개 브랜드에서 '27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텍스트 등을 동시에 분석하여 변형된 상표 또는 이미지 합성수법까지 탐지한다. 관세청과는 AI로 탐지된 해외직구 위조상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는 판매사이트의 접속차단 및 해외 사업자 게시물의 삭제를 연계하는 등 다부처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화장품 등 피해 빈발업종에 적합한 첨단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업연계도 확대한다.

< ②SNS, 라이브 방송 등 집중 단속 >

SNS, 라이브 방송 등 은밀화 되는 유통채널에서의 증거수집 기법을 고도화하여 기획수사로 연계한다. 상습판매자의 계정을 차단하고, 위조상품 판매자 정보도 공유한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 시행한다('25.7.22 시행). 그리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야기하는 동대문 노란 천막 등 대규모 위조상품 판매노점에 대해서는 전담수사팀 편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 ③ 온라인쇼핑몰도 ‘책임 분담’...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온라인에서 상표권자가 위조상품을 플랫폼에 신고하면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고, 해외 소재 온라인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제도도 도입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는 신고·차단 조치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및 언론에 공표된다. 또한, 특허청의 서면실태조사 및 그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알리는 절차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④ 가짜 K-브랜드 단속, 연 30만 건으로 확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K-푸드, K-화장품 등 한류 인기에 편승하여 해외 현지에서 유통되는 가짜 K-브랜드의 규모는 11.1조원(97억 달러, '21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통 중인 K-브랜드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및 차단을 현재 19만건에서 '27년까지 30만 건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K-브랜드의 해외 위조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식료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위조상품의 정·가품 식별법을 해외 IP센터 및 aT센터 등 현지 유관기관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현지인이 직접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고, 현지기관에게는 단속을 위한 위조상품 정보도 제공하는 등 현지 K-브랜드 침해대응도 강화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외교부가 협력하는 K-브랜드 보호 거버넌스 구축계획도 포함된다. 특허청이 빈발 브랜드 목록, 피해사례 및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유관부처는 수출지원,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유통에 속도감 있게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특허청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붙임 : 위조상품 유통방지기술 현황 / 별첨 :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경훈 (042-481-5213)
		담당자	사무관	김지연 (042-481-5179)



구분	기술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공간섭 시각효과가 적용된 위조방지 라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벨 표면에 공간섭 보안 요소가 삽입되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 및 이미지 변화 → 육안으로 정품 여부 확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봉인 기능이 적용된 라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박스, 장비에 부착 후 제거 시, 라벨 또는 피착면에 'VOID', 'OPEN' 등의 경고 문구 표시 → 정품 인증 및 무단 개봉 방지에 활용
	<p style="text-align: center;">자외선 형광소재가 적용된 보안 인쇄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비추었을 때만 발광하는 형광물질이 인쇄잉크에 적용된 기술 → 자외선램프를 통해 진위 확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비가시성 보안라벨 기술이 적용된 제품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상자 외부에 육안 식별이 어려운 워터마크형 보안 라벨 부착 → 소비자는 전용 앱을 이용해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 가능 및 유통 이력 추적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나노 패턴 기술이 적용된 신용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표면에 투과 또는 반사되는 빛이 특정 이미지를 나타내 진위 여부를 식별하는 기술 → 휴대폰 플래시로 정품 확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화폐제조 요판기술*이 적용된 작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오돌도돌한 촉감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기술로 화폐 제조에 사용되는 기법
	<p style="text-align: center;">복합 기술이 적용된 QR코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코드에 워터마크, 미세문자, 복사방지패턴 등 비가시성 보안요소를 중첩한 물리적 보안 기술 → QR코드를 인식하면 정·가품 확인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비가시성 기술이 적용된 정품인증 라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QR코드와 결합된 보이지 않는 코드에 가변형 보안값을 삽입해 동일 제품에도 각기 다른 보안코드 생성
	<p style="text-align: center;">RFID 등의 기술이 적용된 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신 RFID와 EM* 기능에 광결정 필름, 형광 다중화, 특수물질감응 기술 적용 → 위·변조 방지 및 반환 이력 관리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미세문자 기술이 적용된 제품 외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안 식별이 어려운 10마이크로미터(1/100mm) 크기의 미세문자 삽입 → 육안으로는 선으로 보이거나 확대경으로 문자와 숫자 식별 가능

* 인쇄판에 글자나 그림을 오목하게 파서 잉크를 채운 이후 강한 압력으로 인쇄

* Electromagnetic field : "전기"와 "자석"이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

구분	기술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RFID 기술을 활용한 정품식별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주파(300MHz~3GHz) 기반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단계별 정품 식별 및 이력 추적이 가능한 위조 방지 시스템 구현